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3년 6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종교적 권고

(코헬렛 4,17-5,4)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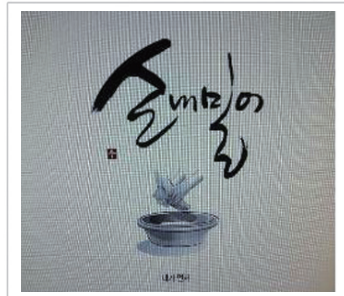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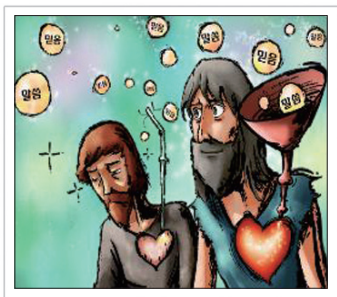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세관장 마태오의 집에 함께 머무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소서.
- 주님,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코헬렛 4장 17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느님의 집으로 갈 때 네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말씀을 들으러 다가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알지 못한다. 하느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 네 입으로 서두르지 말고 네 마음은 덤비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너의 말은 모름지기 적어야 한다.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네가 하느님께 서원을 하면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채워라.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네가 서원한 바를 채워라. 서원을 하고 채우지 않는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진행자 미사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은 평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큼니

다. "주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제자의 허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이사 50,4-5)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자주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셨고, 거기서 지혜와 힘을 얻어 가난하고 지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며 반대자들의 의혹과 비난에 꺾끗하게 맞서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을 잘 새겨들으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루카 8,15)이 되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 즉 믿음, 희망,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7)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니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1,4절을 부릅니다.

궁금
했어요왜 영성체 때 왼손이
위로 올라가나요?

영성체는 원래 혀로 영했으나 처음 영성체 하는 사람들은 혀를 내민다는 것이 왠지 우리 정서상 불경스러워 보이기에 한국 교회에서는 손으로 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른 손잡이를 기준으로 할 때 왼손으로 성체를 받아야만 오른손으로 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을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올려야 되겠지만 대개 오른손을 쓸 수 있고 또 영성체를 하는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표가 될 수도 있기에 왼손잡이도 왼손을 위에 올리도록 합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모르고 줄을 서서 영성체를 하러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하기에 본명을 물어보면 대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함으로써 주님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혼의 양식이 되어 오신 그분의 사랑 안에 꼭 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깊숙이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꾼이 되자

- 팔용동 성당 3구역 2반 -

† 찬미예수님

저희 팔용동 성당은 2007년 1월 2일 창원 중동 성당에서 분리 되어 신설되었으며, 마산교구 최초로 상가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성당입니다.

팔용동 본당 소공동체는 4구역 11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구역장 월례회의 출석률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교육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공동체는 아파트 단지인 관계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극동2반이라 부르는 3구역2반입니다. 극동2반의 총 24세대 중에서 성당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는 9세대인데 그 중에서 5세대만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활발하게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가지고 하는데, 5단계에 이르러서 가장 활발한 나눔이 펼쳐집니다.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 되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간혹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자매님이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반원들 모두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지만 얼른 본론으로 돌아와서 서로 서로 도움을 받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다짐합니다. 본당과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실천사항들을 나누는 부분에 이르러 올해는 견진성사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는 형제자매에게 적극 권유하자는 이야기와 은퇴 신부님을 찾아뵙자는 이야기도 나누고 무엇보다 쉬고 있는 교우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하여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다. 또한 더 많은 반원의 참석을 위해서 저녁에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당에서는 본당 신자간의 친교를 위해 교중 미사가 끝난 후 다과와 차를 준비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데, 이때 극동2반 차례가 돌아오면 가게를 하고 있는 자매님은 가게 문을 조금 늦게 열더라도 반을 위해 적극 도와줄만큼 협조적입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서는 꼭 식사를 합니다. 하하 호호 웃으면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하느님 보시기에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하느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인)도 함께 하면 정말 바람직한 소공동체 모임이 될 수 있을텐데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원들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 여러 방법들을 의논하며 실천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찾는, 그리하여 어디에 있던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신앙인이 되자고 극동2반 반원들은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팔용동 성당 3구역 2반 반원들〉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